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5年 7月 15日 第103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鍾
인쇄인 韓萬洙

편집부장 韓萬洙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9 (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계좌번호 7500891

동국인의 새 修練場

“창창한 낙산 기슭...”



모교 낙산수련장 개장

“창창한 낙산기슭”이 동해인의 제1명소 “낙산”에 우뚝 솟았다.

대지면적 1,239평, 연면적 467평(1층 232.5평, 2층 234.4평) 지상 2층 규모의 모교 낙산수련장(정식명칭: 동국대학교 낙산학사)이 7월 10일 개장.

젊은 코끼리들의 휴양처로서, 심신단련의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낙산 한 복판에서 휘날리는 모교의 푸른 빛 校旗.

7월의 東海...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교기는 내년으로 80周를 맞는 모교의 교세를 자랑이라도 하듯 위풍당당히 휘날리고 있다.

(9면에 관련기사)

동창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在美디트로이트 동창회



- 회 장 **朴秉洙**
(61법학)
- 부 회 장 **강충현**
(62경제)
- 부 회 장 **梁昌守**
(65식공)
- 총무부장 **金元奎**
(67사학)

外회원일동

역대회장

- 1 대 **金在俊**
(58영문)
- 2 대 **李泰根**
(58정치)
- 3 대 **崔秉植**
(60영문)
- 4 대 **李鍾穆**
(61법학)

연락처 회장 : 313-474-3186(택)313-863-7076(직)
 총무 : 313-585-8295(택)144 ROTH CLAWSON Mi. 48017

鄭飛石長篇小說

小說 孫子兵法

孫子兵法는 단순한 兵書가 아니다!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도 아니다!
 차원높은 처세의 비법을 깨우쳐줄
 재미있고 유익한 小說 孫子兵法!
 소설 손자병법은 합리적인 기업경영,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세상의
 철리를 터득하여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시는
 바로 당신이 읽으셔야 할 현대인의 성전입니다.

春秋戰國時代, 그 난세의 영웅 호걸들이
 다채롭게 펼쳐진 장엄무쌍의 일진일퇴!
 한국 소설 문단의 거표 鄭飛石이
 성공의 지혜를 설파한 현대인의 성전!
 천하명장 孫武와 그의 손자 孫臏, 제세의
 호걸 오자서와 경국지색 서서 외신상담으로
 야망과 복수의 칼을 가는 5패16국의 제왕들, 그 회대의
 영웅 미녀들이 엮어가는 흥망성쇠와 이합진산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사의 철리를 새삼 깨우쳐 주는 감동적인 小說.

전3권 각권 각300면내외/각권 값2,8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小說 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說 楚漢誌, 小說 三國志!

小說 三國志

* 男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상을 얻을 기가 막힌 妙筆이다!
 * 鄭飛石이 내뿜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실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 鄭飛石이 내뿜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실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 鄭飛石이 내뿜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실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전6권 同時出刊!

小說 楚漢誌

* 鄭飛石이 내뿜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실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 鄭飛石이 내뿜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실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고려워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 6622 호
 영업부: (744) 7741-3
 편집부: (730) 8082-4

주요 論議事項

동문·우수학생 美초청 연수
同門자녀 母校싸머스쿨 추진
美洲지부장 80주기년식 참석

‘멀다고 마음마져 멀 수야..’

美동문 80周사업 적극 동참키로

申益炫국장 美洲 6개지부 순방·귀국

본회 申益炫(72경정) 사무국장
은 1개월의 美洲支부 순방을
마치고 지난 7월 6일 귀국했
다.
개교 80周사업의 추진과 본부-
해외지부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이번 순방에서는 디트로이트支부
에 회기가 전달되었으며, 가는 곳
마다 따뜻한 동문들의 환영과 東
友會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①내년 개교80주 기
년식에 美洲지부會長 초청 ②80

周사업에 해외동문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美洲지부 순방을
마치고 지난 7월 6일 귀국했
다.
개교 80周사업의 추진과 본부-
해외지부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이번 순방에서는 디트로이트支부
에 회기가 전달되었으며, 가는 곳
마다 따뜻한 동문들의 환영과 東
友會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①내년 개교80주 기
년식에 美洲지부會長 초청 ②80

또한 會報발송을 단계발송에서
개인별 발송으로 바꾸어, 會報
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하
기 위하여 해외 각 지부는 정
확한 회원주소록을 새로 제작,
우송해오기로 했다.

한편 申益炫은 1천여명의
美洲지부 동문들은 눈코 뜰새
없는 美東생활중에서도 자주 만나
同門의 정을 나누고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 따뜻한 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전하고, 이
어『바쁜 일정과 비자관계로 부
득이하게 캐나다支部를 들리지
못해 유감스러우며, 캐나다 동문
선배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5면·7면>

美術科 야유회

장학금 1천만원 목표

미술학과 동창회(회장·李勳
元·79미술)는 지난 6월23일
청령에서 야유회를 정기총회를
갖고,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
성하기로 결의했다.

회원 80여명이 가족동반, 2
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
날 야유회에서 동창회 회원들
의 작품을 기증, 전시회 수익
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
의했다.

동회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李勳元(79미술·로교
강사)(414)3415

▲부회장-李相敏(8미술)

▲총무-張煥(77미술)

東五會 월례 모임

學軍 5期生 동참바라

東五會(회장-金勝有)는 지난
6월21일 오후 7시 영동「가림」
에서 월례모임을 열었다. 지난
84년 6월 창립이래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모임을 가
져오고 있는 동회는 학군단 5
기생들의 모임이다.

80周 文學 전통 中興 다짐

동문文人주축 「東國文學 中興추진위」 구성



崔載福추진위원장

「東國文學 中興추진위」가 동문文人
인들의 주축으로 발족
되었다.
동문文人
들의 모임
인 東國文學
會(회
장-姜敏·59국문)는 지난 4
월24일 동회 定總會에서 결의된
「東國문학 중흥선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
난 6월 同추진위를 결성,
모교 黃龍雲(57국문·방송국 작가)
이사장·鄭在哲(본회)회장·崔載九(경
의)회장을 비롯, 본회 회장단및

상부이사, 徐廷柱·趙靈(경문단원
동) 등 99명을 동회 고문
위원으로 추대하고, 문인 동문
들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추진위는 「東國文學 中興
을 다짐한다」라는 취지에서
「自他가 공인하는 韓國文學의
胎元 脈인 東國文學이 겨우 그
명맥만 지켜오고 있는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칭하고
「개교80周의 모교에 文學百
年의 전통을 재정립 내일의
계승·전통을 위해 문인동문은
물론 전 동문의 협조와 성원
을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부추진위원장을 맡은
崔載福(57국문·방송국 작가)
동문은 중점 사업으로(1)東國
詩集 계속 발간(2)「東國文學

賞」제정(3) 모교교정내에 「文
學學士」건립을 위해 동문 力
를 한 사람이나 全東國人의 力
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國會 正覺을 발족

고문 崔載九·金容午 동문

현직 佛子의원들과 국회사무
처 직직원들 구성된 국회정
각회가 지난 6월10일 조계사
에서 총회를 갖고 창립되어 본
會 崔載九(경의)회장(주인)과 유
일한 비구 羅眞인 金容午(신인)
동문이 고문을 취임했다.

佛教學科·城北區 동문회 창립

회장에 金煥泰·李康壽 동문

5백여명 배출...佛教學科가

佛教學科

불교학과 同
門會가 6월29
일 결성됐다.

53년 이후
모교 불교
학과를 출
업한 동문
들의 친목
도모를위
해 결성된
이날 초대
회장은 金
煥泰(59년)
모교불교대학장을 선임했는데 同
교는 그간 5백여명의 졸업생
을 배출, 모교에 만도 陸順培
(62) 權奇煥(64) 吳炯根(64)
徐岡古(68) 교수들이 후학이다.



金煥泰 회장

에 힘쓰고 있는 등 佛教學科研究
의 메카로서 기능해오고 있
다.

이날 참석자 못한 동문들은
모교 불교문화연구원으로 졸업
연도와 주소를 연락하면 된다
고. (267) 8131~9 421.

기금 1백50만원 증서모금

城北區 동문회

정식 창립총회를 갖

고등단 3차례의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화원파라 등 준비작업
을 해오던 동회는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년」에서 창
립총회를 개최, 회장에 李康壽
동문을 선출하는 등 일원선입과
회칙제정을 끝냈다.
동회는 우선 회원전목과 애
정사 선부회로 꾸려내 나가
며, 장기적으로는 모교 발전에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창총에서는 즉시모
금으로 1백50만원의 기금이 조
성되기도 했으며, 발족까지 해
여정들 모교고 동문의 정을 나
눴다. 선부회에서 거주하기 지
장을 갖고 있는 동문들은 동
회 金榮一사무총장에 연락(92
3-3834)해주시 바란다.

이날 선임된 동회 초대임원
진임 기금합산동문 명단은 다
음과 같다.

△임원진

△회장-李康壽(63법학·삼선
2동)

△부회장-李慶純(64법학·한
일방직회사) 金光錫(69경평·중
년각 대표)

△감사-朴大赫(63생물·홍창
대표)

▲사무총장-金榮一(63경의·
동신여대대표)

△기금합산내역

▲李康壽(63법학) 金光錫
부회장 30만원 ▲朴大赫(삼선
10만원) ▲金榮一(사무총장) 5만원
▲洪元희(68경의) 동문-10만원
▲金敏彥(74통계) 동문-5만원
▲조완국(84법원입학) 동문-30
만원

東友漫評

鄭雲耕



80周! 뿌리깊은 나무는...

哲學科 춘계야유회

6월 2일 진관사서

철학과 동창회(회장-林相敏
57년·삼창건설사서) 춘계야유회
가 지난 6월 2일 진관사에서
개회되었다.
동문50여명 재학생70여명등이
참가한 이날 야유회에서 동회
는 앞으로 매년 2회(6월 1
세 토요일·12월 3세 토요일)
야유회를 개최, 동문-재학생의
유대강화를 힘쓰기로 했다.
동회 林의장은 이날 6돼지
배부회를 제공했으며, 金榮得(64
년·金榮高) 동문은 내년 세미
나를 金榮直指사로 초청했다.

惠門會 야유회

회원 주소록 제작, 배부

혜문의(회장-金鍾慶·48예진)
는 지난 6월 2일 三峯寺(順
民大尉) 일원에서 야유회를 갖
고, 40년전 학창생활의 情을함
게 나누었다.
동회 회원들은 지난 101號
부터 본회에 연재중인 金鍾基
(48예진) 증본의 「나의 惠門時
節」을 중심으로 재학생의의
고담을 나누는 등 정서적 이야
기에 하루를 보냈다.
한편 金鍾基동문은 동회 회
원 주소록을 새로 제작, 배포
하기도 했다.



黃龍雲 회장

를 열고, 3백여명의 동회 이
사를 확정했다.

동회 黃龍雲회장, 朴忠煥(59
년) 부회장을 1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회장단회의에서 黃龍雲은 인
사들을 통해 「재일기자들 조직
강화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겠
다」고 밝혔으며, 이사추대, 반담
금 확정등을 중반고, 회 황성
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마침 제류중 회의에 참석했
던 尹炳德(57년·前보리 뉴우
會長) 동문을 해외이사에 선임하
는 등 총 3백여명으로 확정된 이
사들은 앞으로 동회 발전의 건
인자 역할을 하게 된다. <관련
은 4면 광고란 참조>

1일, 생물과 定總

매년 축제기간에 열려

생물학과 동창회(회장-金鍾
旭)는 지난 6월 1일 모교 해
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모교 축제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500여명의 東原에오른 동
문들은 同科후배들을 마련한 「생
물포럼」을 통해 관심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회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원병희·朴泰勳(전모
교교수)

경제학과

동창회(회

장-黃龍雲
·54년·泰山
銀行長)는
지난 7월
12일 오후
6시30분
메사리호텔
동부각에서
회장단회의

를 열고, 3백여명의 동회 이
사를 확정했다.

△부회장-이한우(61·효신
크리터링) 金鍾熙(64·동남
지社長) 李輔明(65·세화산업사
代表) 金炳宇(69·尙志大교수)
李弼求(72·내아직물代表) 朴光
錫(78·모교 학생회)

△감사-宋毅發(61) 朴大赫(2
63·홍창代表)

△총무-李正一(70·모교감사)

東英會 임시모임

元老-신일同門 유대강화키로

東英會(회장-崔明在)는 지난
6월28일 미성학회가 지난 6
월28일 미성학회가(삼각지 소
재)에서 임시 모임을 갖고,
회원 현주소 파악, 장학사업등
의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을 가졌다.
동회는 이날 모임에서 원로
선배및 최근 졸업한 후배들과
의 유대강화에 특히 주력하기
로 결의했다.

山에서 만납시다.

山岳會, 全 동국인 대상 月例 산행

지난 16일 명지산서 건강·친목 함께다져

東國山岳會(회장-鄭鎮求)추
최 1회 月例산악회가 지난 6
월16일 명지산 일원에서 열려
산과 물을 동시에 즐기며 무
더위를 쫓고 同門애를 다졌다.
전동문의 결속과 건강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월
례산악회는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부부 동반및
가족 동우회별 단체참석환영),
회비도 5천원으로 저렴하다.

매일 셋째 일요일 오전 8
시 모교 회관에서 출발, 오후
7시경 서울에 도착하며, (중
식 혹은 휘사준비), 신청은 매
월 출발일 1주전까지 전화로
하면된다. (102號 9면 광고란참
조)

◆신청처

▲동국산악회 회장 鄭鎮求(59
2)2255

▲동회부회장 金文煥(267)0716

“서로의 가장 좋은「비평가」요「팬」, 교정에 萬海 선사詩碑 건립돼야...



<19>

父·夫·婦 동문

◇趙 宗 玄

(夫·31中佛·시조시인·前 總和宗宗正)

◇趙 廷 來

(夫·66국문·소설가·한국문학가)

◇金 初 蕙

(婦·66국문·시인)

趙宗玄-趙廷來-金初蕙 동문 가족. 東國文學 빛나는 전통의 한 갈래를 확고히 여주는 언변들이다.

「현대문학」誌에 연재중인 장편소설 「大白山脈」을 발표하고 나자오마을 (安妻)에서 마 돌이온 趙廷來동문 부부를 「한국문학」社에서 만날수 있었다. 「仁寺洞」-1번지의 「韓國文學」社는 이들 부부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의 역할도 받쯤은 하고 있는 곳이다.

『萬海선생 詩碑를 세워야 합니다. 民族의 무사였고, 종교적 觀者였으며, 구대문학의 오묘한 기풍이었던 萬海선사는 우리 모교가 낳은 가장 큰 인물이에요. 꼭 우리 모교 교정에 세워져서 東國精神과 또 東國文學 傳統의 상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봐요.』

趙동문의 첫마디는 東國文學 전통의 계승 얘기였고, 金동문도 말을 받았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동국대국문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때였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예요. 韓龍震·梁柱東·趙演鎭·徐廷柱·趙芝蕙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전통을 자랑하고 발전 시켜주세요.』

文教部 부속학과 지정에서 국문과가 지정되지 않은 사실, 국가고시에 비해 문단대위에너무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하다못해 학교

동문은 유일한 불만이라고. 『하지만 未堂선생 대열 가면 아직도 「시인金모의 남편인 文學青年 趙모」로 남아있잖아!』 하며 파아레소. 1代 東國人 趙宗玄(80歲) 동문은 麻谷寺 강원院長·總和宗宗正등을 지냈고, 시조집 「子正의 지극」 「의상대 해동」 등을 펴낸 문단과 佛敎界의元老.

趙廷來동문은 70年 현대문학으로 데뷔 「流刑의 땅」으로 현대문학상, 「베를린」로 대한민국문학상 「메아리 매아리」로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집만도 8권을 펴낸 중진작

韓國文學 인수... 「순수」 지켜

「東國文學」과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잡지이기 때문에 「순수」를 지켜야 한다는 金동문.



진짜냄새 나는「東國가죽」

『제가 재학시절에 동국문화회 회장을 맡았었어요. 아마 여자회장은 유일했죠. 그래서 그 때도 모두들 잘 따라왔는데 유독 저 양반만 사사건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유일하게 내간 글씨로 제가 보기에 제일 잘 쓰더군요...』

金동문은 3학년때 「현대문학」誌로 데뷔 (작품 「진」 徐廷柱선생 추천) 한 장항한 현시인이었고, 趙동문은 그저 「文學青年」에 불과했었다는 것.

실제로 조동문은 문단 데뷔로 보면 5년 후배들. 그래서 『문단 후배들도 「소설가 趙모의 아내인 金모」로 봐서 선배대접을 제대로 안해주는 것』이슬

가. 지난 84년 경영년에 빠진 「한국문학」誌를 인수,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상업주의적 소비 문화」 경조로부터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金初蕙동문은 東大新聞社 학술상을 수상하는등 재학시절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원간 「소설문예」주간등을 역임. 서로의 가장 좋은 비평가인 동시에, 가장 훌륭한 「팬」이라는 두 동문은 67년 徐廷柱선생의 주매로 결혼, 슬하에 외아들 趙繼元(중1)을 두고 있다. (733)7328.

支部消息

美지부, 申국장 맞아

환영회 겸 總會 러쉬

지난 6월 7일부터 1개월간 美洲지부별 순방한 申益煥(72경영) 본의 사무국장을 맞아, 美 6개 지부는 각각 환영회를 갖고 80명사립등을 증점토의하는 한편, 본부-해외간의 유대강화의 좋은 계기로 삼았다.

뉴욕지부(회장-일세장)는 지난 6월14일 오후 7시 「우래옥」에서 申益煥 국장 환영회 겸 총회를 가졌다.

尹虎應·任世昌·辛鎮基·曺時英·金仁圭·李根雨·崔茂植·具榮德·崔泰根·金成國·金仁淑등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석. 회장단지부(회장-金厚卿)도 6월17일 오후 7시 우래옥에서 徐永海·宋濟卿·尹鶴龍·韓相培·鄭基用등 동문의 참석 한 가운데 환영회를 개최했다.

디트로이트(회장-朴秉株)는 6월19일 오후 7시 백복정에서 환영회를 가졌다. 李泰根·林煥·朴秉株·梁昌守·宋秉久·金仁佐·崔秉植·金元奎·明亨植·하워드 지 門들이 참석.

시카고지부(회장-尹應慶)도 6월22일 오후 7시 이화장에서 환영회 겸 총회를 열고, 오는 7월14일 부부동반 야유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尹應慶·文英男·姜大勝·敎炳職·이인호·李長洙·南秉國·金萬鉉·홍승준 門들 참석.

샌프란시스코 코지부(회장-金厚吉)도 6월28일 오후 7시30분 청자식당에서 환영회 겸 총회를 열고, 오는 8월18일 부부동반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金厚卿·韓陽殊·河廣俊·이석우·鄭柱煥·姜善秀·白善煜·崔文奎등 동문 참석.

LA지부(회장-崔秉植)는 7월1일 오후 7시 우래옥에서 환영회 겸 총회를 개최했다. 任香根·張振建·崔秉洙·崔敬善·李益祥·金學醇 등 동문과 趙廷基모교 경상대 학장등이 참석. 연말에 대대적인 「LA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로 결의했다.

總長旗 골프대회 시카고



南泰熙 동문

시카고동문의(회장-尹應慶)는 제2회 총장기정달 골프대회를 오는 8월 4일 개최할 예정이다.

동문 7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동회는 부산거주 동문의 소재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했다.

全南支部 월례 이사회

全南支部(회장-崔聖鎭·光州敎大학장)월례이사회가 지난 6월 7일 「삼호전 갈매기」에서 열렸다. 梁采烈(72년학·광주서관 세무과) 동문의 신임 환영회를 겸한 이날 회의에는 鄭根植(44년학) 崔泰鎭(59년학) 등 회고 동문, 崔聖鎭(52년학) 회장등 동회 이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테니스대회

대구 테니스회(회장-홍기인)는 지난 6월 6일 동국대 테니스장에서 월례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崔鍾奇-林洛允조(복식)와 南慶元(단식)등이 각각 차지했다.

▲우승-崔鍾奇(71년학)-林洛允(76년학) 조 ▲우승-金東鎭(79년학)-權泰德(70년학) 조

▲단식-南慶元(73년학) ▲준우승-徐燾均(73년학)

부산 東國會 6월 모임

부산 동국회(회장-南基碩)는 지난 6월28일 국제호텔 스키아 라운지에서 월례모임을 가졌다.



(株) 위커힐旅行社 Walker Hill World Travel Inc.

代表理事 千 璣 雄 (60 정치)

사업종목: 國際旅行알선업, 국제선 항공권 예약판매

해외단체 여행, 연수, 산업시찰, BUSINESS등 동문여러분의 해외여행을 성심 봉사하겠습니다.

TEL (776) 9801~4 (778) 3631~5



美洲 순방- 첫 미국여행이 자 장거리 비행이라는 점에서 가슴설레이는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개교 80주년 기념사업 직주진, 본부-해외지사 부 간의 유대 강화' 등의 공적처우가 「후두안교」 목소리를 잃어버린 친척의 별문안이라는 사적 용건으로 이루어진 여행이었기에 발걸음이 그리 가벼울 수 만은 없었다.

6월 6일 오후 3시20분 다소 복잡해진 머릿속을 서서히 정리하며 LA는 스프링필드 시립도서관 탐승, 드디어 낯선 곳 만나라 美國으로의 發進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고생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주여행을 많이 해본 주위 동문들의 조언에 따라 T셔츠 차림으로 탑승했건것이 화끈이 되었던 것으로 (내가 문화인이 못되어서 인지) LA에 도착할때까지 내내 에어콘 바람만 쐬이면 끈이 이르고 땀속까지 수시는 고질병 「에어콘 알레르기」로 고생을 겪어왔던 것이다.

다른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담요 및장갑을 준비해 갖고 있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준비를 안해 반팔차림으로 별별벌 「에어콘 알레르기」와 싸워야 했다.

후에 겨우 여승무원에게 부탁해 담요 한장을 얻어 온몸을 감쌀 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 에어콘의 냉기와 싸우는 데, 재차 점검해 보려던 동문 방문계획 내용 검토는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탑승은 했었지만) 도착이후로 미필적수 밖에 없었다.

밤을 지새우며 LA공원에 도착해 보니 날씨는 아직도 6월 6일, 거기다 오전10시. 그런 고생도 있고 나는 「날짜엔 경선」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타임머신이라도 타던 것처럼 「하루를 더살게 된것」이 신기하게 되었다.

LA에 도착한 후 첫 느낌은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하는 노래가사만 들으면 딱연히 느꼈던 LA와는 거리가만, 「그저 질서있고후르르 도시구나」 하는 편백한 느낌이였다. (후에 귀국길에 본 밤의 LA공원을 보고야 그 노래가사의 뜻을 알게 되었다. 정말 아름답고 휘황한 LA의 모습이었다)

올림픽을 치른 공황상태 편린한 시스템으로 인국하여 다 운타운의 힐튼호텔에 일단 짐을 내려놓았다.

낯선 곳에는 열렬한 이방인의 고생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치면 무궁화 서너개는 될 정도의 호텔 목욕탕시설이 최하급 어딘지실한 뜰이나 뭇가? 우리나라 속박시설만 생각하고 세면도구라고는 깃털하나만큼 준비한 나로서는 치약도 없는 육박 시설에 당황이 되지 않을 수 없

다. 알고보니 육박함이 아니었다. TV도 영화한편 시청에 5달러75센트! LA 동문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대에 있는 메모를 보니 일반공중전화(20선)보다 3배나 비싼 60원. 美國이란나라를 실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을 모르는 나에겐 서비스업이 아니라 바가지업이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시카고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자정때 떠나는 비행기를 더듬더듬 예약했다.

차 유리창이 깨져있을까 걱정입니다.」라는 사촌동생의 말에 내가 느낀 「살벌함」은 그도를 더해갔다. 물론, 그러하듯 무질서속의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대국 미주를 느낄수도 있었다. 처음만난 동문은 뉴욕지부 회장 양오현 (57 경제) 동문과 회장 옆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구영범 (66경문) 동문. 서울에서 자주 뵈던 분들이었지만 반갑고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또한 일제창 신임회장

머 워싱턴 동문회의 이소식 저소식을 여쭈보았으나 「많은 동문이지만 잘 모르지 않는다는」는 불행(?) 한 얘기를 듣게되었다. 결과적으로 금번대로 재조직, 활성화될 기미 좋은소식을 보내주시기로하고 2박3일의 워싱턴 여정을 서명해동문회에서 신세게게 되었다. 해당 풍나물국을 대접받았음에도 「여기가 미국인가」 실용정도로 진한 고향생각이 일기도 했

지의 디트로이트 지부」의 차이에 대한 불리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알기로는 이태근 (68 정치) 동문과 오랫동안 교직으로 계셨던 임문선선생님에 몇번이 계시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와보니 30여동문이 주거적인 모임과 단합된 동정성을 조직하고 활동중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무의 무심의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박병수 (61 법학) 회장을 뵈는 순간 머리를 숙여 배배 사과를 드리게 되었다. 처음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회장님도 사무국장을 솔직히 고백과 사과에 허심탄화한 이해를 보내주셨고 결국 「디트로이트 동문회의 정제할」과도 「지속적인 역사를 보여주기위해서」라고 「동창회신문」 및 「동대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하게 되었다.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미로 광고는 무로게재하게 할것」을 제의했지만 「그렇게하면 디트로이트지부의 독립성이 없어진디」며 광고료는 꼭 부과하시겠다고 하고도 했다. (후에 내가 귀국후 방문한 디트로이트지부 양창수 부회장께서 광고원고까지 준비해와서 전달하셨다.)

또한 행복정모일에서는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더욱 타당한」 의견과 새로운 사항이 논의될바 요망되리라만,

미주지역동문의 외장의 한자리도 힘을 갖도록하자.

모든 공지사항을 국내동문과 똑같이 소식을 전해달라.

○동창회의 모든 사업을 사전에 연락하여 동참하게하자.는 등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문제제시들이었다. 외식이 끝나고 다음행선지로 떠날때까지 1박 2일을 조금도 불면없이 안내해주시고 그 그린 버스(그레이트아운드)가 출발할때까지 시간을 같이 해주시는 등 여려가지로 애써주시는 이태근동문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싶다.

<계속>

가는 곳마다 『萬里同好』

LA→시카고
→뉴욕→워싱턴
→티트로이트

申 益 炫 국장 美洲 순방기

남과 이근우총무의 배려로 2주여 예정인 릴레회를 앞당겨 여러동문들을 만날수 있었다. 학생회장을 역임하신 김인규 배시영총문, 자정이 넘어 새벽 1시까지 집과 정반대쪽인 해속사까지 배래다 주시느라 해메며 고생하신 최태준총문, 다음날 예정이었던 골프 토너먼트에 참석시키려 애쓰신 최부남총문, 김성국총문. 결국 동창이란 알던 모르면 만나주려 반갑고 정이 솟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느끼는 기쁨을 맛볼수 있었다. 앞으로의 동창의 사업·교교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들으며, 열과이어서 스테이트 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을 향해 아쉬운 출발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금문교에서 동문들과, 右로부터 최문규, 차영준 등도 맨노측이 申益炫국장.

시 가교 오에이컴plx 도착은 6일 아침 8시. 특별으로 수척해 지신 아바님과 어머니, 그리고 10년만에 만나게되는 동생이 시아에 들어왔다.

뤄다시피 출구를 나와 목소리없이 내리 올지키는 아바님앞에 넋두렸느러 뜰분부였다. 우리나라의 인사예의를 모르는 주위에 있던 미국인들의 어리둥절 영문물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6월12일 뉴욕.

이번 순방으로 진정한 東友愛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볼수 있었다. 곳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그만큼의 보람을 느꼈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에 대한 방문소감도 역시 상당.

수많은 빌딩숲의 맨하탄이 눈앞에 보이면서부터 이곳이 뉴욕이구나 하고 느끼기도 잠깐. 거리의 지저분한 쓰레기며 형편없는 교통질서(무단횡단 끼어들기등이 비일비재였다), 출근이며 서성이는 여기저기의 흑인무리들.

『맨하탄 중심가에 주차할때는 가방도 중요하게 없더라도 일단 가지고 내리세요. 가방보다

6월17일 워싱턴. 마중나는 서명해 (前워싱턴 지부회장) 동문에게 『신국장 미국여행이 몇번째인가?』 신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제는 좀 능숙해서 세계적지의 최고봉 워싱턴 D. C에 가까운 발걸음을 내리었다.

관광 우대국 (장간건동문 견영)으로 가서 오찬을위해 기념하는 회장단을 뵈고 인사를 드렸다.

서명해동문, 정기응동문, 한상배동문들을 뵈고 식사를 나누

고, 2박하는 동안 세심한 주의로 보살펴주시는 사모님의 따스한 인정은 어찌해 어머니가 살아주시던 사랑과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6월19일 디트로이트. 김원규(디트로이트지부총무) 동문의 마음을 받으며 도착한 자동차공업이 본산지 디트로이트는 시작부터가 「최소함」과「대담함」 그리고 「東國愛 확인」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서울 본회가 파악하고 있던 디트로이트지부」와 「현

본회는 지난 6월6일부터 7월6일까지 美洲 6개지부를 순방하고 귀국한 本會 申益炫사무국장의 여행기입니다. 이번호에는 LA-시카고-뉴욕-워싱턴-디트로이트를 꼭 지켜주고 다음호에 샌프란시스코와 대략적인 정리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註>

각 종 慶 吊

화 환 · 꽃바구니
생 화 · 신 부 화
화 분 · 도 산 매

世界頂上의 피아노 『영창』

木工과 金屬의 종합 예술품

영창의 최상급의 목공과 금속가공 기술 (『국제기능 올림픽』 목공부문에서 금메달 2번 획득)로 이루어진 『영창피아노』는 세계정상의 「木工과 金屬의 종합예술품」입니다.

영창피아노의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하고 균일한 터치(touch)를 경험해 보십시오.

영창피아노용산대리점

代表 金 秉 萬 (62 국문)

〈전화주문 신속배달〉

266-4571 (주) 代表 辛 承 洙

765-4802 (야) (72 경영)

서울 중구 충무로 4가125-1
대원극장앞 진영빌딩 3층 42호

서울 중산구 갈월동 8-48 (752) 5600 · 6700 · 5537

4. 左翼小兒病 患者 學生들

1946년 봄이 되었다. 解放후의 첫 봄. 이미 어느 大學(專門)에서나 두개의 학생단체가 큰 기둥이 되어 있었다. 한 敎堂에서도 두개의 「구름」 오르나 누어 자리를 차지할 정도였다. 「서울學統」(서울학생통일총신)에 속해 있는 총과 「全國反託學生聯盟」에 속해서 움직이는 학생들이었다. 반면 기타 계층은 얼마 되지 않았다.

左翼系列에 속한 學生들은 해방직후 혼란된 서울에서 서울大學·普成專門·延禧專門 등 學生들이 中心이 되어 거리 집시 유지의 名目으로 집결하여 「朝鮮學徒隊」를 組織하였다. 이 學徒隊는 每日 政治集會에 參加하여 오다가 「反託」운동이 展開되면서 「反託學生聯盟」이 形成 되자 두개의 學徒隊로 分裂될 수밖에 없었다.

岳山 봉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美軍의 부도 몸을 감싼 우리를 10여명은 2층 더덕이 방에 모여 앉았다.

이날도 서울大學의 김홍태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정세, 국내동향 누구든지 물어 보면 좌와 우를 말 정도였다. 갑

인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 뿐인 것이나. 이날따라 그는 열을 올렸고 장시간 떠돌고 나서, 끝으로 「따라서 우리는 「공산당」에 가입하여 투쟁하는 것이 젊은 지식인으로서 가장 좋은 행동이며 민족애심의 발로입니다」하고는 가지고 온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배부하게 주었다.

손이 받아들고 읽어보니 「공산당 입당 원서」라고 쓰여있

위 「공산당 후보당원증」(처음에는 누구든지 후보당원 증발이었다. 한사람의 당원이 그밖의 구약과 성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되어야 하는데 내정우는 그러한 과정도 밟지 않고 수리되었다. 나의 성분과 환경이 도저히 공산당의 강령, 구약과 체질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졸졸 생각해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에서는 지주·자본

상당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당했을 뻔하였다. 여담초 실패작의 이대 미·소 共黨 개최를 위한 예비會談이 진행되자 좌익계열에서는 1946년 1월 23일 이후 서울운동장에서 미·소代表團 韓省市民大會를 좌익단체 연합으로 開催하였다.

이렇게 되자 좌익 學生지도층의 기세는 대단했다. 이면시에서 「共産黨」의 「統一戰線」전술로 「民主主義 民族戰線」(民族戰)을 1946년 2월 15일에 結成했다. 그리고 미·소 共委 1차會議과 더불어 左翼系列은 운동적 지들의 世上一이나 되는 活氣를 띠고 날뛰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수립될 統一政府의 組織에 「民戰」만을 參加시키려고 책정되었다. 매일같이 학교수업이 끝나기가 바쁘게 집회, 대모, 배파살도, 벽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에 공부를 했는지 4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할 지경이다.

부 의 表 示 時 節

金 定 奎

은 學生들, 더구나 그는 理工 학부학생이 아니었는가? 어디 서 배웠는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박식가이며 경문가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구절은 「공산당」중앙에서 내린 정세분석에 관한 결정서 내용이었다. 그는 세련된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오늘날 국내 반동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진보적 민주진영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동세력의 중심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들입니다...」 운운하는 것이었다.



그는 「공산당」계열을 일관군 중형이 되기까지 「진보적 민주진영」이라고 했고, 정세내용은 1945년 8월 朴憲永의 「8월제」 내용과 그밖의 결정서들을 종합하여 해설하는 것이었다. 듣고 있으면 누구든지 「우수한 학생이군」하며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그에게 무척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계속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곧 개최

국제정세, 국내동향...누구든 그의 박식에 감짝 놀랐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구절은 「공산당」이 내린 정세분석결정서 내용이었다.

있었다. 모두는 그가 설명하는 단 마디 共黨은 통일정부를 수립 되며 共黨은 친일파·민족반역자. 「반탁세력」은 제외된다.」

김홍태의 정치해설대로 하면 앞으로 수립될 정부내에는 좌

가 출신 지식인들이 「공산당」 신산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나 또한 그런 사람과 同一願望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금방 잘못 출반한 걸음을 느낄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6·25동란 때 더욱 절실히 느꼈고, 평양 생활에서는 더욱더 절감했으니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나는 그들 속에 동화하기 위해 갖는 노력을 줄여야겠다고 자신의 출발을 미화하려 애써왔다.

이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모임에 나가야 했다. 나의 열성은 「학생통일총신회」의 설립부장이라는 김부까지 크게 고무된 것이다.

선배정치인들은 좌우로 분열했으나 우리들 학생들은 좌우가 합쳐서 공산당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자고 목표를 내세웠고, 학생단체들의 행동통일을 위하여 각과파 학생들은, 당시의 선전부에도 참가하여 모두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 실패는 미리 예견된 공산 계열의 사견각분에 의한 것이었다. 좌우이합체일 일부순진한 학생중조세력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선전부에도 참가시켰다. 일부 순진한 학생들은, '1946년의 해방후 첫번째 3·1절을 맞아 기념행사만 좌우이 합동으로 하자. 어쨌든, 정치인들은 분열되었으나 우리 학생들은 합치자. 3·1절 하루만이라도 민족의 광장에 걸출한 행사를 하자」고 의기투합했으나 모두가 실패했다. 공

나는 여기서 경상북도 隊長으로 뽑혔다. 여기서도 「공산당」은 농어촌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정치노선과 학곡수집 반대선동을 교양했다. 그들의 논에는 고함으로 가는 학생들의 학생이 아니라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있던 것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고함으로가는 우리들에게 승진요망곡은 아니기라 팔팔했음을 나누어주었다. 이것들은 이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개혁법」공민권 입당일기 저지르고 있는 일당독재 정권의 기만수속을 잘 알았다는 선전책자였으나, 문고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열성분자로서 당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했다. 이애를 통합하라는 경복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각과파 책임자들을 독려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의 음모적 행동은 당국에 의해서 곧 탐지되었다. 농어촌 체류이라는 이름으로 내려가는 學生들을 政治선전 도구로 이용한 사실은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노릇이다.

민족의 독립과 통일보다 「계급투쟁」 「선견장악」을 늘 세우며 공산당의 생각이 학생들에게는 남음이 가지 않았고 뜻밖이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북에서는 그때로 나타나 많은 지식인들과 6·25전에 또는 6·25후에 이동성의 포화를 겪고 남으로 이주해오던 것이다. <계속>

지나호 (102호) 3. 해방 후 첫번째 「대학생」의 교수장사 명단중 佛敎敎의 高旻臣 金堯石 金堯石 金堯石으로 고쳐냈다. <연재순서> ①해방(101호) ②해화전선연표 ③해방후 첫 번째 「대학생」 (102호) ④ 좌익 분파화합학생들(103호) ⑤ 「國大系」 반대 운동 (104호) 예전 <편집자註>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 제작·장학기금·사무국 운영에 요긴

- ◇회장단 분담금
 - ▲馮國一(78원)
 - ▲理事會費
 - ▲양정호(81원) = 5만원
 - ▲조정환(49사) =
 - ▲김현표(55정) =
 - ▲이병관(61사) =
 - ▲이희일(63정) =
 - ▲홍두표(60정) =
 - ▲고순복(64분) =
 - ▲지정환(52정) =
 - ▲김재진(62정) =
 - ▲정종호(62정) =
 - ▲박시환(81원) =
 - ▲年會費
 - ▲서동호(66원) = 3만원
 - ▲차시현(64사) =
 - ▲강성규(82원) =
- ▲장정식(62정) = 2만원
- ▲윤병우(70정) = 1만원
- ▲권경설(64곡) =
- ▲최희철(62정) =
- ▲송시용(74친) =
- ▲손산양(52정) =
- ▲이규현(65정) =
- ▲이경일(82정) =
- ▲최경길(61정) =
- ▲허필국(60정) =
- ▲조현호(76정) =
- ▲이승교(67정) =
- ▲홍정욱(85친) =
- ▲김진갑(65원) =
- ▲조현수(64정) =
- ▲박준성(61정) =
- ▲한호남(73정) =
- ▲권중용(83정) =
- ▲김상동(59원) =
- ▲윤기훈(82원) =
- ▲최희성(50곡) =
- ▲정연파(84원) =
- ▲정구선(74부) =
- ▲최종대(85원) =
- ▲정구선(79정) =
- ▲박원호(77정) =
- ▲신동림(74회) =
- ▲안세영(69정) =
- ▲반준용(60원) =
- ▲이영길(84회) =
- ▲윤중화(84원) =
- ▲김계술(80원) =
- ▲김재택(49원) =
- ▲이경성(83정) =
- ▲이광철(58정) =
- ▲김재일(54정) =
- ▲정준목(60원) =
- ▲김정원(78정) =
- ▲정연파(84원) =
- ▲김영복(66원) =
- ▲조원호(79정) =
- ▲김윤중(73정) =
- ▲정익실(50곡) =
- ▲김영복(61원) =
- ▲김우용(66원) =
- ▲조원호(79정) =
- ▲이승숙(85정) =
- ▲이정훈(64회) =
- ▲김종택(67정) =
- ▲조준명(69원) =
- ▲김성주(84원) =
- ▲김부용(77정) =
- ◇단체회비
 - ▲인천사 女商문회 = 5만원
 - ◇광교회
 - ▲동우회 = 102號광교 = 90원

동굴탐험 연구회 日本원정

동남아 동굴탐사 예비훈련

모교의 동굴탐험연구회(회장=이수용·산공3)는 오는 25일부터 8월15일까지 일본 원정 동굴탐험을 떠날 예정이다.

동씨들의 이번 원정은 「동굴의 천국」으로 알려진 동남아지역 동굴탐험을 위한 예비훈련의 성격을 띤 것으로 야기요시다이(秋吉台), 세이꾸라(井倉), 후우오까(福岡)후지(富士)등의 동굴을 탐험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에서는 일본의 간사이(關西)학원대학

과 교오포(京都)산업대 탐험부와 공동탐사를 통해 일본의 동굴탐험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동굴의 보존및 이용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동굴탐험 연구회는 1969년 창립, 16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그간 3백여 동굴을 탐사한중 관음굴 4폭포(전장 2km), 환선굴(4.5km)등을 다녀 탐사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84년)에는 뱀목을 타고 내려오며 남한강 유역의 동굴을 탐사하기도 하였다.

東國학원 이사장에

吳 綠 園 등문



학교법인 東國학원이 이사장에 吳仁甲(綠園·73행원)님이 선임됐다.

지난 6일 있는 이사회에서 제12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吳님은 지난 1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어 정기이사회및법인관계 직무를 잠정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총회위원장, 직지사 주지,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등을 역임했다.

단백질 구조 결정 성공

국내최초로 尹柱億 교수팀

母校 식품공학과 생화학연구실 尹柱億교수팀은 국내최초로 효소단백질의 일차구조(아미노산배열)를 결정하는데 성공하여 그결과를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에서 열린 「생명공학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그 구조가 결정된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각종 세균감염에 의한 질병의 치료및 세균침입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과 식품공업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 27일까지 1주일간 원정경기를 갖는다.

俞光震학생처장을 단장으로 김성덕교수와 선수등 모두 19명이 참가하는 이번 원정은 東京에서 大東文化大學과의 경기등 모두 4경기를 가지게 된다.

趙旺基교수 회장피선 한국생산성학회 創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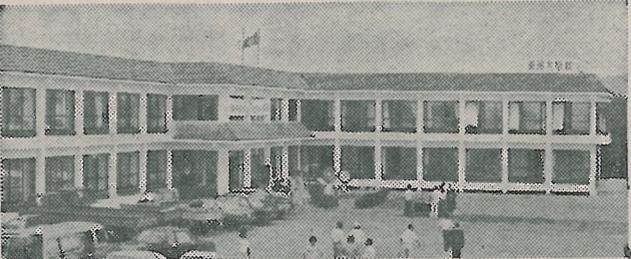
모교 경상대 무역학과 趙旺基(51경제)교수와 李勝榮교수가 지난달22일 오후 3시 모교 동국관에서 열린 「韓國生産性學會」총회에서 각각 회장과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창립총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생산성에 관심이 많은 각 대학의 교수및 관계단체 연구요원등 96명이 참석하여 회칙과 임원개선을 끝마쳤다.

앞으로 同학회는 각분야의 생산성향에 관한 학술연구를 하게 된다.

「논술고사」시행계획

학술부에 따르면 배점은 총점의 3.9%(20점)으로 기본점 10점이 가산 10점내에서 평가되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출제된다. 출제방식은 한 문제를 출제, 100분내에 7백자에서 1천자 내외로 답안을 작성하게 할 방침이다. 채점은 모집단위별(과별)로 평가하며 3인 1조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 평균점을 내되, 개관평가와 요소별 평가를 곱하여 채점하게 된다.



洛山학사 (수련장) 준공

母校의 낙산수련장 준공식이 지난10일 11시 강원도 양양읍 전진리 현지에서 金仁鴻부총장, 李鍾南양양군수, 權五一(57법학·양양고교장) 등문, 숙조경찰서장 등을 비롯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낙산사스님의 독경에 이어 李鍾南군수와 시공자인 신우건설(주) 김낙남사장, 설계를 맡은 도봉연합 건축연구소의 박희선씨등에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吳綠園 재단이사장을 대신한 차銘善장사가 김부총장에게 이양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定礎石개막과 테이프절단, 천도제를 끝으로 준공식을 마쳤다.

한편 본회 鄭在哲회장은 대협축화화환을 보냈으며, 영북동창회(회장=朴載權)에서도 화분과 시계등을 보내왔다.

이날 준공과 함께 개장한 낙산수련장은 연건평 4백67평에 교직원실 14실, 학생실 10실등 24실의 숙실과 식당(개인별 취사가능), 휴게실, 탈의실등 부대시설을 갖춘 초현대식 2층건물로 2백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다.

동 수련장은 연중계속 개장하며 학생과 교직원등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 사용기간은 1회 3박 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관리비는 교직원실은 실당 1일 2천 5백원, 학생실

은 1인당 1일 2백원으로 총무처 관재과와 학생생활과에서 사용신청을 받고있다.

야구부에 청바지기증 柳英樹·崔강 등문

柳英樹(66행정·서부세무서법인세과장·본회이사) 등문과 최강(66경영) 등문이 6월 중순 모교 체육부에 청바지 39벌(시가60만원상당)을 기증했다.

柳等문은 재학시(65년) 총학생장을 지냈으며 國會재직시는 국회동우회 발기멤버겸 총무로 大田근무시는 한밭회 멤버로 忠南지방활동에 적극참여한바있는데 崔강等문과 함께 「작은 성의」라며 기증한 청바지는 야구부선수들에게 전달됐다.

李鍾麟교수 별세

26일 法政大學葬 엄수

24년여간 모교 교수로 봉직해오던 李鍾麟(66法博)교수가 지난 6월 24일 상오 4시 은평구 갈현동 227-35자택(389-5673)에서 별세했다.

5代 民議員을 지내고 모교 대학원장·법정대학장등을 역임했던 李鍾麟교수의 영결식은 26일 상오11시 모교에서 法政大學葬으로 등문·제자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수되었다.

경찰 학생회관 수색

총학생회장등 10명 연행

지난달 29일 새벽 4시20분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전경과 사복경찰 2백여명이 母校 학생회관에 들어와, 池在鵬(인철 4) 총학생회장을 비롯 10명의 학생을 연행하고, 총학생회실과 학생회관내 물품, 자치회비 3백 65만원등을 압수해갔다.

이번 경찰의 학원일제수색은 母校를 비롯, 서울大·高大·延大·西江大·成大·外大등 서울의 7개대와 釜山大 全南大등 모두 9개대에서 있었는데, 경찰은 이번 일제수색이 문교부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연행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재봉(총학생회장·인철 4·구속) ▲김찬권(기획부장·정의 4·구속) ▲김형민(제3언론편집부장·물리 3) ▲오성철(정의 4) ▲이덕열(휴학중) ▲이상도(홍보부원·2부産工 2) ▲김학성(농학 2) ▲박준태(농학 2) ▲김종규(농학 2) ▲이충환(체교 2)

농구부 日本원정來20日 大東文化大 초청으로

모교 농구부가 日本 大東文化大學 초청으로 지난20일 渡

韓龍煥교수 「제4회 小說文學賞」 수상



◇韓龍煥 교수

모교 사범대 國語教育學科 韓龍煥(67영문)교수가 국내 중견작가에 수여하는 小說文學社 제정, 「제4회 小說文學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韓교수의 이번 수상작품은 「호밀밭」(소설문학 85년 3월호 게재)이며, 상금은 2백만원으로 시상식은 오는 9월 중순

예정. 1970년 <冬栢> <파블로프의 개>로 現代文學誌의 추천을받아 小說을 발표하기 시작한韓교수는 77년 겨울 첫 장작집

하성훈君 「韓國文學 신인상」 수상



◇河 成 勳 君

「趙哲씨의 어느 행복한아침」을 출간하고 79년 봄부터 作壇同人으로 활동, 부산여대 교수 재임시는 두번째 소설집 「또 다른 나라」를 출간하기도 했다.

73년 모교 大學院에서 文學碩士학위를 받고 지난해(84년) 「李光洙 小說研究」로 文學博士학위를 받았다.

모교 경주컴퍼스에 재학중인 河성훈(법학 3·필명 聖鉉)군이 「한국문학」社의 詩부문 신인상에 당선됐다.

河군의 이번 당선작은 詩「새벽길」인데 河군은 慶州컴퍼스 설립이래 3번째, 재학중으로는 2번째로 詩부문 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문단데뷔의 영광을 안았다.



韓田油化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康 相 台
事務理事 梁 正 五

생 산
업 종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공업용 : 용제
유탄유 : 조유

仁川市 北區 佳佐洞 180-44 (전화) 인천 82-5381~5

서울 직통 764~5561~3

FAX (仁川) 82-2221

동창회관 나와라! 똑딱

수박 속에 동창회관(?)

○...출장·학생간부 간담회에서 학생측이 「학생회관내 무과부서 철폐 및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전해들은 이후 내내 접접한 상태에 있어 있던 본사무과에 이의(以心)를, 병어(병어)를(?)의 속사정을 알기라도한듯(金勝雄)은(72경영·롯데호텔차장)과 安惠根(72경영·본회이사·영신상호신용금고영업부장)이 서로 약속을 한것도 아닌데 차레차레 수박 밧덩(밧덩)을 사들고 받들(밧덩) 걸질한 똑딱 정신도(밧덩) 죽일(밧덩) 것(밧덩) 들(밧덩) 리(밧덩) 앓(밧덩) 아(밧덩) 감(밧덩) 사(밧덩) 하(밧덩) 는(밧덩) 마(밧덩) 음(밧덩) 으(밧덩) 로(밧덩) 수(밧덩) 박(밧덩) 을(밧덩) 가(밧덩) 르(밧덩) 면(밧덩) 서(밧덩) 본(밧덩) 사(밧덩) 무(밧덩) 과(밧덩) 직(밧덩) 인(밧덩) 들(밧덩) 은(밧덩) 고(밧덩) 비(밧덩) 무(밧덩) 문(밧덩) 과(밧덩) 합(밧덩) 계(밧덩) 「감(밧덩) 남(밧덩) 갓(밧덩) 던(밧덩) 제(밧덩) 비(밧덩) 가(밧덩) 가(밧덩) 저(밧덩) 는(밧덩) 바(밧덩) 을(밧덩) 쪼(밧덩) 개(밧덩) 는(밧덩) 흥(밧덩) 부(밧덩) 네(밧덩) 가(밧덩) 죽(밧덩) 처(밧덩) 면(밧덩) !」을(밧덩) 함(밧덩) 창(밧덩) 하며(밧덩) 파(밧덩) 안(밧덩) 대(밧덩) 소(밧덩) .

東同動을 읽으시는 동문여러분! 모든 동문들이 같은 마음으로 수박「6단계(?)」를 묘(묘)아(묘)나(묘)와(묘)라(묘) 똑(똑)딱(딱)?-을(을) 함(함)창(창)하(하)면(면) 「동(동)창(창)회(회)관(관)」이(이) 아(아)니(니)라(라) 「모(모)교(교) 제(제) 2, 제(제) 3(3)컴(컴)퍼(퍼)스(스)」인(인)들(들) 어(어)렵(렵)지(지)않(않)습(습)니(니)까(까)?

회보廣告 효과크다구요

○...아시아시 「東友會報」는 지난 1백호부터 12면 중면과 표지 2도 인쇄를 단행했는데, 예상외로 광고수입이 저조해서 고민중. 동창회 살림이 편한 예산이고 보면, 광고수입이 계속 저조하다면 모처럼의 의무적인 중면이 難航을 겪게 될수도.

물론 제재도에 올라서면 큰

어머슴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동창회보라고는 「효과」보다 「엄찬」이라는 인식이 문제일텐데, 일전에 명함광고로 게재했던 S社 금보동문의 경우, 회보가 발송되자마자 3건의 전화 신청이 있었다고 심를 벌급(벌급)하기도.

크고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동문님들, 불경기업수록 회보광고로 믿을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십시오.



東國대동동창회勸募직임

「믿고 찾는 동문 기업. 서로 알고 서로 돕자」

有소식이 有결속

○...금번 본회 사무국의 미주동창회 순방은 호숫한 일도 많았고 깨달은 점도 많았던 보람있는 일이었는데, 그중 첫방문지였던 뉴욕지방방문시의 애기승 소망(소망)이(이)서(서)로(로) 동(동)창(창)회(회)소(소)식(식)을(을) 나(나)누(누)고(고) 앞(앞)으로(로) 본(本)회(회)에서(서) 각(각)지(지)부(부)에(에) 벌(벌)일(일) 사(사)업(업) 및(및) 계(계)획(획)을(을) 피(피)력(력)하(하)고(고) 하(하)며(며) 회(회)식(식)을(을) 나(나)누(누)는(는) 중(중) 마(마)간(간)을(을) 이(이)용(용), 현(현)지(지) 崔(崔)동(동)문(문)이(이) 「신(신)국(국)

「믿고 찾는 동문 기업. 서로 알고 서로 돕자」

믿고 찾는 同門기업 서로알고 서로돕자

장남은 돈애기 안하시는 겁니까?」라고해 그렇지않아도 「이(이)여(여)만(만)리(리) 고(고)생(생)하(하)는(는) 부(부)들(들)께(께) 최(최)소(소)스럽(스럽)지만(지만) 조(조)하(하)는(는) 것(것)에(에) 애(애)기(기)를(을) 꺼(꺼)내(내)볼(볼)까(까) 하(하)며(며) 말(말)설(설)이(이)런(런) 참(참)이(이)라(라) 미(미)안(안)스럽(스럽)기(기)도(도) 해(해) 「모(모)교(교)이(이)란(란) 여(여)지(지)로(로) 걸(걸)는(는) 것(것)이(이) 아(아)니(니)고(고) 애(애)고(고)심(심)내(내)지(지) 우(우)러(러) 난(난) 마(마)음(음)에(에)서(서) 내(내)이(이)란(란) 더(더)뜻(뜻)이(이) 있(있)고(고) 값(값)진(진)것(것)이(이) 아(아)니(니)겠(겠)습(습)니(니)까(까)?」고(고) 어(어)떻(떻)게(게) 일(일)기(기)겠(겠)지(지)만(만) 마(마)음(음)속(속)에(에) 「본(本)회(회)와(와) 모(모)교(교)가(가) 해(해)의(의)동(동)문(문)들(들)과(과) 과(과)한(한) 무(무)엇(엇)을(을) 해(해) 주(주)었(었)습(습)니(니)까(까)?」하(하)는(는) 자(자)재(재)가(가) 반(반)반(반)인(인)기(기)다(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본회의 사업이 선결할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차진약속하는 등 호의적인 자세를 보여 가 보면 마음은 더욱 훨씬 선진기(선진기)마(마)다(다) 부(부)위(위)는(는) 거(거)의(의) 언(언)비(비)수(수) .

그때도 동문은 역시 동문, 「東國」을(을) 의(의)원(원)할(할)수(수)는(는) 열(열)연(연)이(이)상(상)의(의) 관(관)계(계)인(인) 만큼(만큼) 「적(적)극(극)적(적) 참(참)여(여)」를(을) 약(약)속(속)받(받)았(았)고(고), 모(모)지(지)부(부)의(의) 모(모)동(동)문(문)은(은) 뜻(뜻)만(만) 같(같)이(이)할(할) 동(동)문(문)이(이) 있(있)다면(면) 「10만(만)불(불) (1억(억)원(원)정(정)도(도)의(의) 기(기)금(금)도(도) 패(패)하(하)거(거)출(출)」하(하)겠(겠)다(다)고(고) 기(기)본(본)체(체)의(의)를(을) 하(하)는(는)가(가) 하(하)면(면), 또(또) 동(동)문(문)은(은) 「우(우)수(수)동(동)문(문)및(및) 재(재)학(학)생(생) 간(간)부(부)의(의) 주(주)어(어)행(행) 주(주)선(선)도(도) 자(자)정(정)」

하여간, 국내에게신 동문여러분! (개)고(고)하(하)느(느)니(니) .

이(이)연(연)만(만)리(리)에서(서) 열(열)심(심)히(히) 살(살)면(면) 서(서)도(도) 모(모)교(교)와(와) 동(동)창(창)회(회)를(을) 잊(잊)지(지)않(않)는(는) 동(동)문(문)들(들)께(께) 「미(미)국(국)여(여)원(원)에(에) 그(그)저(저) 한(한)번(번) 들(들)르(르)고(고) 있(있)어(어)버(버)리(리)는(는) 그(그)런(런) 무(무)심(심)한(한) 동(동)문(문)들(들) 되(되)지(지) 마(마)시(시)고(고) 「고(고)향(향)소(소)식(식), 동(동)창(창)회(회)소(소)식(식)도(도) 자(자)주(주) 전(전)해(해)주(주)시(시)는(는) 진(진)정(정)한(한) 우(우)정(정)과(과) 결(결)속(속)의(의) 동(동)문(문)들(들) 되(되)시(시)기(기)를(을) 간(간)곡(곡)히(히) 부(부)락(락)부(부)락(락)」

「반체제의 논리」

李哲範 동문
현재 美LA에 거주하고 있는 詩人 李哲範(50·국문) 동문이 자유와 구원의 사상으로 일관된 사회·문화 비평집 「반체제의 논리」를 펴냈다.

「본단의 현실과 한국문학」 「지금의 현실과 한국문학」 「지금의 현실과 한국문학」 등의 作者로 널리 알려진 李 동문은 78년 탈고 해두고 이제야 펴내게 된 「반체제의 논리」는 가난과 억압속에서 살아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고통과 분노, 사랑과 금지의 詩를(을) 중심으로 극복되지 못한채 여전히 큰 모순으로 남아 있는 모순의 역사를 지적, 반성해야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인철서각판·345면·4000원>
첫 산문집 「한밤중에...」

申庚林 동문
詩人 申庚林(59경문·민요연구회 회장) 동문이 첫 산문집 「한밤중에 눈을 뜨면」을 펴냈다.

<부끄러운 이야기들>, <민중 공중체로서의 문화>, <내려다 보라> 등의 詩를(을) 펴냈다. 이산집에 자신의 내면세계에 비친 일상의 의미, 문화의 진정한 주체와 성격의 문제, 자신의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申 동문은 56년 「文學藝術」 추천으로 재학중 시단에 데뷔, 동문학의 현실을 바탕으로 「푸른색의 현실」의 체험을 형상화 하고 있다.

<나남판·3,000원>

동창회안내

「反체제의 논리」

李哲範 동문
현재 美LA에 거주하고 있는 詩人 李哲範(50·국문) 동문이 자유와 구원의 사상으로 일관된 사회·문화 비평집 「반체제의 논리」를 펴냈다.

「본단의 현실과 한국문학」 「지금의 현실과 한국문학」 「지금의 현실과 한국문학」 등의 作者로 널리 알려진 李 동문은 78년 탈고 해두고 이제야 펴내게 된 「반체제의 논리」는 가난과 억압속에서 살아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고통과 분노, 사랑과 금지의 詩를(을) 중심으로 극복되지 못한채 여전히 큰 모순으로 남아 있는 모순의 역사를 지적, 반성해야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인철서각판·345면·4000원>
첫 산문집 「한밤중에...」

申庚林 동문
詩人 申庚林(59경문·민요연구회 회장) 동문이 첫 산문집 「한밤중에 눈을 뜨면」을 펴냈다.

<부끄러운 이야기들>, <민중 공중체로서의 문화>, <내려다 보라> 등의 詩를(을) 펴냈다. 이산집에 자신의 내면세계에 비친 일상의 의미, 문화의 진정한 주체와 성격의 문제, 자신의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申 동문은 56년 「文學藝術」 추천으로 재학중 시단에 데뷔, 동문학의 현실을 바탕으로 「푸른색의 현실」의 체험을 형상화 하고 있다.

<나남판·3,000원>

「不動産 公法」

吳鎮模 동문
한국 부동산학의 부회장으로 있는 吳鎮模(61법학·국토개발연구원) 동문은 최근 「부동산 공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吳 동문은 84년 「국가고시연구회」의 요청으로 출간했던 「不動産仲介에 관하여는土地公法」을 전면 개편,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서로 펴냈다.

<韓瑞出版刊·428면·7,500원>
시집 「世上國」

蔡洙永 동문
詩人이자 평론가인 蔡洙永(65국문·시인) 동문이 세번째 詩集 「世上國」을 펴냈다.

詩集 「世上國」을 펴냈다. 80년 「月刊文學」 신인상 詩部에 당선돼 시인으로 활약, 80년에 「목마른 잔」 83년 「바람의 일곱」 등 시집을 내고, 「예술계」 겨울호에 「시의거린」으로 문화평론 부문에 당선, 평론가로도 활동중인데 이번 詩集에는 「우리가 날리는 것」 발로서도 향내에 젖을 수 있어, 「가슴깊게 사는 죄」 등 90작 990여편을 담고 있다.

<584-9792>
<藝珍書館 刊120면·1,800원>
동인지 「판」

金澤根·함성주 동문
金澤根(79국문·경향신문기자) 함성주(80국문) 동문이 6월 25일 젊은 시인 7명과 함께 「판」 동인을 구성하면서 첫 동인지 「판」을 내놓았다.

「詩를 간직하는-일체의 이념이나 제도권속에서 자유를 고사 한다는 선언 아래 두동문은 김경호·백이문·오승강·우영창·전성규 등이 참가한 「판」 동인 詩集에 金 동문은 「겨울 숲 겨울 노래」 등 5편을 포함 동문은 「판」 등 9편을 발표하고 있다.

<第3企劃刊·116면·1800원>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
그것을 고려는 창조하고 있습니다.

고려제이드
대표: 박찬대

서울·중구 장충동2가 162의1 11 평 방 빌딩 A동 5층 (중앙우체국서삼5047호) 전화: 274-6411, 6412

□ 좋은 추억은 우리를 한없이 포근하게 합니다.

東國家族의 영원한 추억을 '생생하게' 담어드립니다.

<동문 20% 할인 특별봉사>

칼라 사진의 명문!
새한 스튜디오

代表 宋光洙 (742) 9339
(743) 9339

서울시 중로구 낙원동 211 (파고다극장앞)
부설: A.P 칼라 종합현상소 / 한국사진학원 (742) 7770

모든 東国人은 東国人이 경영하는



나라항공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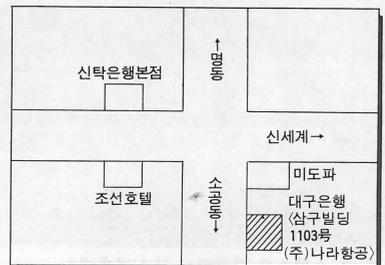
代表 安重五
(65영문)

해외여행자에게 희소식!

다양한 항공요금에 손님들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을 산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항상 바쁩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오시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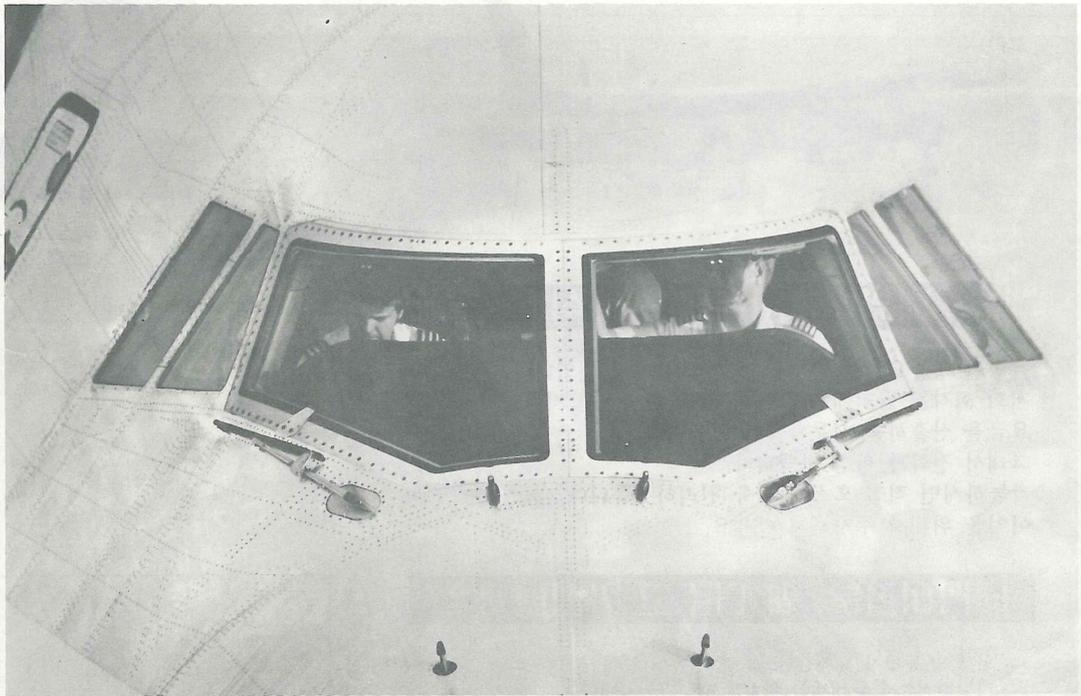
同門여러분, 왜 더주고 가십니까?

1. 학생 및 동반자 특별할인요금이 있습니다.
2. 이민가시는 분들에게는 외상으로도 가능합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분할가능)
3. 세계일주 특별할인요금(\$ 2,099)이 있습니다.
4. 가장 편리한 시간으로 연결하여 드립니다.
5. 어느 항공사 표도 다 취급합니다.
6. 출국, 입국 신고서도 작성하여 드립니다.
7. 비행기표 전달도 항시 가능합니다.



(株)나 라 항공 NARA TRAVEL SERVICE

미국 3대 도시로 논스톱 항공편운항



미국으로 여행하실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스웨스트 항공만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씨애틀 등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논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캐나다의 50여개 도시로 곧바로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요금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요금으로 익제큐티브 클래스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여행거리에 따라 무료여행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미국여행은 편리한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3:40pm	10:40am	로스앤젤레스
	1:45pm	12:15pm	시카고
	4:15pm	10:00am	씨애틀
		4:00pm	뉴욕
	11:50am	1:30pm	샌프란시스코
		9:00am	호놀룰루

이제부터 노스웨스트오리엔트입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조선호텔(서울) 753-6106/9, 755-0416/7, 777-9786 ●롯데호텔(서울) 778-8240/1 ●힐튼호텔(서울) 752-2394/5
●소공사무실(서울) 778-0181/7 ●반도호텔(부산) (051) 44-2240